

## 번역된 전쟁 속의 여성들 — 「Boule de suif」의 남북한 번역 연구\*

박선희(고려대학교)

### 1. 서론

본 논문은 1960년대에 남한과 북한에서 출판된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소설, 「Boule de suif」의 한국어 번역본들을 비교 연구하였다. 북한은 분단 이후 1990년대까지 세 번의 ‘세계문학선집’을 번역 출판하였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장 처음 출간된 북한의 첫 번째 ‘세계문학선집’인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의 1965년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같은 시기인 1960년대의 남한도 “번역문학의 르네상스적 개화” 시기를 맞아 ‘세계문학선집’과 ‘문고류’의 출간이 1950년대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던 시기였다(김병철, 1998, p. 187).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세계문학선집’이나 ‘세계 문학 문고판 시리즈’로 출판된 동일 소설의 남한 번역본 3종과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번역본 1종을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 코퍼스들인 남북한 번역본들이 출판된 1960년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던 냉전시기였다.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9158).

1) 북한의 프랑스 문학 번역 출간에 관한 연구는 박선희(2019) 참고.

따라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 체제 하에 살았던 남한과 북한 번역자들이 자본주의 서양 국가의 외국 소설(이 경우에는 프랑스 소설, 「Boule de suif」<sup>2)</sup>)을 번역할 경우, 번역자들의 사회적인 시각은 그 만큼 다를 가능성이 많다. 번역은 번역을 선택한 사회의 실천적 행위이고(Wolf, 2007, p. 7), 번역 과정에서 이국의 텍스트는 자국 번역 수행자의 해석을 거쳐 번역 출발어(이 경우, 프랑스어)에서 도착어(이 경우, 한국어)로 전환되므로,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번역 표현들의 결과물 안에는 번역자의 해석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1960년대라는 동시대에 모과상의 동일한 프랑스 소설을 번역한 남한과 북한 번역자들의 해석과 그 번역의 실천적 차이들을 찾아내고, 그 이유를 추적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Boule de suif」라는 한 편의 19세기 프랑스 소설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20세기의 남한과 북한이 옮겨낸 방식에 대한 번역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이자, 냉전시기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번역의 도착 국가들 간의 번역적 차이를 탐색하는 공시적 연구이다.

「Boule de suif」의 북한 번역본에 대한 고찰은 박선희(2020)에 의해서 선행 연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번역의 충실성’, ‘번역의 가독성’, ‘번역의 정치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1965년의 북한 번역본을 분석한 바 있다. 박선희(2020)는 이 논문에서 북한의 번역본이 19세기 프랑스의 문화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보다는 떨어지는 시기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원문의 오역이 소수 발견되지만, 북한의 번역본이 대체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번역하려 하였다는 점과 북한 독자들에게 낯선 문화를 자연스러운 도착어로 재표현하려는 번역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다만, 원문이 명시적인 강세 표현으로 번역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어휘 해석에 있어서 번역자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투영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등 번역의 정치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논문에서 언급한 번역의 ‘명시화’와 ‘정치성’에 주목하여, 같은 시기에 출판된 남한의 번역본들과 북한의 번역본을 상호 비교

2) 본 논문에서 모과상의 원작은 「Boule de suif」라 표기하고, 동명의 여주인공은 ‘불 드 쉬프’라고 표기한다.

하였다. 즉, 북한 번역본에만 한정되어 있던 선행 논문의 연구 범위를 남한 번역본으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계층의 남녀 인물들 중 각 계층을 대표하는 여성들로 분석의 범위를 보다 한정하여 전쟁이라는 참화 속에 던져진 여성들에 대한 묘사와 여성들의 발화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의 ‘명시화’와 ‘정치성’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 2. 「Boule de suif」와 여성들

번역 원문인 「Boule de suif」는 1870년과 1871년에 일어난 프랑스와 프러시아 간의 전쟁, 일명 ‘보불전쟁’을 배경으로 제 2제정 당시의 사회 계층들을 대표하는 대귀족 부부, 공장주 부부, 상인 부부, 수녀들, 민주투사, 매춘부, 여관주인 부부가 등장하는 소설이다. 이들은 당시 프러시아군 점령지인 프랑스 북서도시 루앙(Rouen)을 탈출하여 프랑스군 주둔지인 르 아브르(La Havre)로 가던 마차 여행자들로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의 유숙지에서 한 프러시아 장교로부터 횡포를 겪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모파상은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에게 당시 프랑스의 각 사회계층들의 전형성을 부여하며, 이들이 침략자이자 지배자인 프러시아 장교를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회 계층별 전형성이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프랑스인들<sup>3)</sup> 중 여성 인물들, 즉, 대귀족 부인, 공장주 부인, 상인 부인, 수녀들, 매춘부, 여관 여주인과 관련된 번역에 주목하여 모파상의 원문과 남북한 번역문들의 일치와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 여성들 중 대귀족과 공장주, 상인의 부인들은 프랑스 사회의 자본적 지배계층을 전형하며, 수녀들은 프랑스 사회의 정신적 지배계층인 종교계를 대표하고, 여관 주인과 매춘부는 서민 계층을 대표한다. 이 여성 인물들에 관한 묘사와 이 여성들의 의식을 번역한 구문들을 원문과 비교함

3) 「Boule de suif」는 남성 6명과 여성 7명의 주요 등장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등장인물들의 발화와 그 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연구 범위가 넓다고 판단되어, 여주인공 ‘불 드 쉬프’를 포함하는 여성 등장인물들의 발화와 그들에 대한 묘사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으로써, 모파상이 부여한 전쟁 지배자와 침략자에 대한 프랑스 여인들의 계층적 전형성이 남한과 북한 번역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Boule de suif」의 여성 등장인물들인 마담 브레비유(백작 부인), 마담 카레-라마동(공장주 부인), 마담 루와조(상인 부인)와 두 명의 카톨릭 수녀들, 주인공 불 드 쉬프(매춘부), 마담 폴랑비(여관 여주인)와 관련된 서술문과 화법 구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여성들에 대한 서술자의 소개, 외양, 태도, 성격과 관련된 여성들의 개성을 표현한 묘사 구문들과 여성들의 발언, 생각, 의식이 직접화법, 간접화법, 자유간접화법, 서술문으로 재현된 구문들을 발췌하여 원문과 번역문들의 병렬 코퍼스를 구축한 후, 남북한 번역자들의 번역 특성을 비교하여 모파상의 원문과의 의미와 표현적 차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모파상의 원문과 번역본들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갈리마르 (Gallimard) 출판사의 판본을 원문으로 삼고, 1960년대 남한에서 출판된 방곤, 이평우, 양원달의 번역본과 1965년 북한에서 출판된 한경수의 번역본을 상호 비교하였다.

<원문>

Maupassant, Guy de. (1974). Boule de Suif in *Contes et nouvelles I*, Paris, Gallimard, pp. 83-121.

<남한 번역본>

기.드.모빠쌍. (1960) 비계덩어리, 양문문고 88, 방곤 역, 서울, 양문사, 단기4293년.  
모파상. (1960). 지방덩어리, Nouvel Club 16, 이평우 역, 서울, 대동당, 단기4293년.  
모파상. (1962). 부울 드 쉬프, 여자의 일생, 피에르와 장, 세계문학전집 39, 양원달 역, 서울, 을유문화사.

<북한 번역본>

모파쌍. (1965). 비계' 덩어리, 프랑스 단편선, 세계문학선집 43, 한경수 역,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0년대 출판된 상기의 번역본들 중 북한의 한경수역은 노동당 소속의 출판사에서 당의 정책적인 계획하에 출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시기에 출판된 북한의 번역본은 1편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민간 출판사들의 판매 경쟁 하에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본들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 번역본 1편과 남한 번역본 1편, 즉 남북한 번역본을 동일한 수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연구에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출판된 남한 번역본 중 1편을 임의로 선정하여 북한 번역본과 비교할 경우, 그것이 동시대 남한 번역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어를 전공하였거나 프랑스어 소설을 번역한 경험이 있는 번역자들<sup>4)</sup>에 의해서 생산된 남한 번역본 3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남한 번역본들 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3. 등장 여성들에 대한 번역자들의 시각

모파상이 당시 19세기 제 2제정 시기 프랑스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Boule de suif」의 등장인물을 구성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작품 속 등장인물 중 공장주이자 정치인인 카레-라마동, 민주투사 코르뇌데, 여주인공 불 드 쉬프는 당시 프랑스 루앙 지방에 실존했던 인물들을 모파상이 작품 속에 재현한 것이며, 작품의 배경이 되던 보불 전쟁 시기에 작가, 모파상이 실제로 루앙에 거주하였던 사실은(Maupassant, 1974, p. 1298) 이 소설의 사실적 성격을 뒷받침한다. 모파상이 이처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이 인물상들이 남한과 북한 번역자들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역자 서문>이나 <작품 해설>에 소개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4) 남한 번역본의 역자 소개에 의하면, 방곤은 프랑스어 전공자로서 다수의 프랑스 소설을 번역하였고, 이평우는 전공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앙드레 지드의 『여성의 학교』를 번역한 경력이 있다. 『보마리 부인』 등 프랑스어 소설을 다수 번역한 양원달은 번역 원문이 1946년 프랑스의 <알뱅 뫼셀>사판 전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세 번역자의 번역본을 모두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번역본의 <역자 서문>은 정치적 관점에서 모파상의 문학 작품들을 해석한다. 서문에서 번역자 한경수<sup>5)</sup>는 소설 「Boule de suif」를 “보불 전쟁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명백히 드러낸 프랑스의 반동적 부르주아지와 관료배들의 반 인민적이며 매국적인 반동적 본질을 날카롭게 비판 규탄한 모파상의 대표적 단편 소설 <비계’ 덩어리>”라고 소개하며(모파상, 1965, p. 16 ; 박선희, 2020, p. 97), 이 19세기 프랑스의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sup>6)</sup>이 “당시대 생활을 전일적 규모에서 부감하는 작가적 시야에는 도달하지 못 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문제를 정면으로 취급하는 데까지 문제를 심화시키지 못 하였다”고 비판한다(모파상, 1965, p. 16 ; 박선희, 2020, p. 99).

이처럼 상당한 정치성을 드러내는 <역자 서문>에서 번역자 한경수는 모파상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물상을 “파렴치하고 무원칙한 부르주아 정치 모리배와 출세주의자들, 음흉하고 위선적인 기독교 승려들, 비겁하고 랭담하고 리기적인 소시민 근성의 소유자들”로 구분한 바 있다(모파상, 1965, pp.17-18; 박선희, 2020, p. 97). 이것을 「Boule de suif」의 등장 여성들로 구분해보면, “파렴치하고 무원칙한 부르주아 정치 모리배와 출세주의자들”은 백작 부인과 공장주 부인이 해당할 것이고, “음흉하고 위선적인 기독교 승려들”은 두 수녀들, “비겁하고 랭담하고 리기적인 소시민 근성의 소유자들”은 상인 부인이 해당하므로(박선희, 2020, p. 97), 부르주아 계층과 종교인에 속하는 이 등장인물들은 북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와 위선을 상징하는 여성들에 해당한다. 반면, 매춘부 출신인 여주인공 불 드 쉬프와 유숙지의 여관 주인, 마담 폴랑비는 이런 부르주아들에게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이해할 것이다.

5) 번역자가 번역본의 <작품 해설>을 담당하는 등 번역본 생산에 있어 번역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남한과는 다르게 북한은 번역팀의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집체 창작’ 시스템이기 때문에 번역본의 <역자 서문> 작성자와 번역자가 보통 다르다. 검토된 북한의 『프랑스 단편선』에는 서로 다른 번역자들이 단편을 각각 번역하였으며, 「Boule de suif」의 번역자인 한경수가 단편선 전체의 <역자 서문>을 작성한 것은 우연의 일치이다. 이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Boule de suif」에 대한 북한 번역자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

6) 남한에서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라고 불리는 문예 사조는 북한에서는 19세기 ‘비판적 사실주의’라고 불린다(박선희, 2019, p. 98).

북한 번역본의 <역자 해설>이 정치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반면에, 남한 번역본의 <작품 해설>은 프랑스의 문학적 해설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를 부패한 반동적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정의하는 북한과는 달리, 프랑스는 한국 전쟁에서 남한의 승리를 위해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우방국이었기에 남한으로서는 프랑스의 문학 작품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남한 번역본들의 <작품 해설>은 작가 모파상에 대한 전기적 소개와 작품의 탄생 배경 등을 소개하며 세 번역본들의 논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인공 불 드 쉬프가 당시에 루앙에서 유명한 창부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 소설의 사실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평우 역을 예로 들자면, 각 등장인물들이 프랑스의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설정되었고, 여주인공인 불 드 쉬프를 애국심이 강한 창부라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남한의 세 번역자들은 작가, 모파상이 각 계층별 등장인물들에게 부여한 이러한 성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번역을 실천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 4. 번역된 여성에 대한 묘사 분석

전술하였듯이, 모파상은 작품 속 여성 등장인물들에게 프랑스 제 2제정 당시의 사회 계층별 전형성을 부여하였다. 사회 상위 계층인 대귀족부인과 공장주 부인은 우아함과 품위를 갖추며, 상인의 아내는 거친 성격과 욕심을 드러낸다. 이 여성들은 침략자인 프러시아 장교에게는 일말의 동경과 순성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여주인공인 매춘부, 불 드 쉬프에 대한 그녀들의 태도는 사뭇 위선적이다. 배고픔에 고통받던 이들은 불 드 쉬프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은 후 그녀에게 일시적인 호의를 보이지만, 매춘부에 대한 그녀들의 멸시와 무시는 작품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 이들은 불 드 쉬프의 도움으로 프러시아 장교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목적지로 가는 중에도 그녀의 희생에 대해 도덕적인 멸시를 보임으로써 결말 부분의 비극성을 배가시킨다. 한편,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줄곧 기도만 하던 수녀들은 프

러시아 장교의 성접대 요구를 수락하도록 볼 드 쉬프에게 정신적 지배력을 발휘하는 위선을 드러낸다. 여성 등장인물들 중 침략자인 프러시아 군인들에게 반발하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드러내는 이들은 서민 계층들인 여관 여주인과 매춘부, 볼 드 쉬프이다.

이처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계층별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여성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남한과 북한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원문과 같은 동질성을 보존하고 있는지, 이질성이 발견된다면 그 번역적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작품 속 서술문에 나타난 여성들의 외모, 태도, 성격에 대한 묘사 구문 등을 발췌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중에 원문과 변이되어 남북한 번역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원문: Mme Carré-Lamadon, beaucoup plus jeune que son mari, demeurait la consolation des officiers de bonne famille envoyés à Rouen en garnison. (p. 89)

한경수역: 남편보다 훨씬 젊은 까레 라마동 부인은 루앙 수비 임무를 맡고 파견되어 온 점잖은 가문 출신 장교들의 노리개로 되어 있었다. (p. 267)

방곤역: 카레.라마동 부인은, 자기 남편보다 훨씬 더 젊었었는데, 루앙에 파견되어서, 병영에 주둔하고 있었던 상류 가정의 장교들에게는 위안의 대상이었다. (p. 21)

이평우역: 남편보다도 훨씬 젊은 까레.라마동 부인은 루앙의 수비대에 파견되어 온 명문 출신의 장교들에게 위안이 되는 여인이었다. (p. 21)

양원달역: 이 남편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그의 아내는 루앙에 파견되어 주둔하고 있는 상류 가정 출신의 장교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이었다. (p. 443)

루앙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공장주 부인, 까레 라마동 부인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원문의 서술자는 ‘Mme Carré-Lamadon [...] demeurait la

7) 번역문의 배치는 북한 번역본(한경수 역)을 먼저 배치하고, 세 편의 남한 번역본을 출판년도 순서(방곤 역, 이평우 역, 양원달 역)로 배치하였다.

consolation des officiers(카레 라마동 부인은 [...] 장교들의 위안이 되곤 했다)’로 기술함으로써 그녀가 지역 유지 부인으로서 프랑스 장교들과 친밀한 교류가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북한의 한경수 역은 까레 라마동 부인에 대해 ‘장교들의 노리개로 되어 있었다’로 번역하였다. 번역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부가되어 까레 라마동 부인의 이미지를 한쪽 방향으로 기형화한 것이다. 남한의 다른 번역들과 비교해 봐도 북한 번역 표현은 상당히 강하다. 원문에서는 작가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그 인물에 대해 상상하도록 독자들로 하여금 열려있는 해석을 유도한다. 하지만 북한 번역본은 번역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명시적인 번역을 함으로써 카레 라마동 부인을 군인들에게 몸을 허락하는 방탕녀의 이미지로 그 품위를 추락시키는 데 번역이 기여하는 것이다.

즉, 공장주이자 정치인의 부인인 마담 까레 라마동을 성적 대상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 인물은 번역자 한경수가 <역자 서문>에서 "파렴치하고 무원칙한 부르쥬아 정치 모리배와 출세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한 인물에 속한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한 등장인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러한 번역은 번역자의 고의적 선택인지, 아니면 등장인물에 대한 번역자의 계급적 비판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번역 표현을 생산하게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번역의 결과는 정치적인 선택으로 읽혀진다.

반면에, 북한 번역본에서는 주인공 불 드 쉬프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매춘부인 주인공 불 드 쉬프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속하는 인물로 침략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애국심이 강한 여성으로 인식되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독자들에게 바람직한 인물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대상일 것이다.

원문: La femme, une de celles appelées galantes, était célèbre par son embonpoint précoce qui lui avait valu le surnom de Boule de suif. (p. 91)

한경수역: 너인으로 말하면, 멋쟁이라고 불리우는 녀성들 중의 하나였으며 비계' 덩어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젊은 사람치고서는 일찍부터 몸이 난 유명한 인물이였다. (p. 268)

방곤역: 매춘부라고 세상에서 불리우는 여자들 중의 하나인 그 여자는,

「비계 덩어리」라는 별명을 얻었으리 만큼 나이에 비해서 일찌  
기 똥똥한 것으로 유명했었다. (p. 23)

이평우역: 여자는 매춘부였다. 조기비만증으로 유명해서 그 때문에 불-  
드.슈이프(지방 덩어리)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다. (p. 23)

양원달역: 여자는, 세상이 매소부라고 부르는 종류인 이 여자는,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니건만 살이 올라 둥그래졌고 또 그걸로 유명해  
져서 부울 드 쉬프(비계 덩이)란 별명까지 얻어가지게 되었다.  
(p. 444)

원문의 장면은 작품의 앞 부분에서 주인공 불 드 쉬프를 번역본 독자들  
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으로 해당 여성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하는 대  
목들 중 일부이다. 원문에서 모파상은 주인공인 매춘부 여성에 대해 형용사  
'galante (여자가) 바람기 있는'와 명사 'embonpoint 약간 살이 찐 상태'를 사  
용하여 독자들에게 불 드 쉬프에 대한 첫 이미지를 전한다.

이러한 원문에 대해 복한의 한경수 역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 될 수  
있는 'galante'는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멋쟁이라고'로  
번역하고, 여성의 포동포동한 살찐 몸체를 설명하는 'embonpoint'은 '몸이  
난'으로 번역하여 주인공 여성을 긍정적 이미지로 복한 독자들에게 소개한  
다.

남한의 번역들을 비교해보면, 'galante'는 '매춘부, 매소부'라고 서로 비슷  
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embonpoint'은 방곤 역과 이평우 역은 '똥똥  
한 것으로', '(조기)비만증으로'라고 번역하여 불 드 쉬프의 외양을 부정적으  
로 묘사한다. 반면, 양원달 역은 '살이 올라 둥그래졌고'라고 번역하여 여주  
인공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선택을 하였다. 번역자들이 어떤 표  
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번역된 소설 초입에서 여주인공 불 드 쉬프의 이미  
지가 남한의 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느냐, 긍정적으로 전달되는지 결  
정되는 것이다.

여주인공에 대한 이러한 번역 특성은 다른 번역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원문: Par moments il prenait un air triste pour soupirer : « Pauvre fille !  
» ou bien il murmurait entre ses dents d'un air rageur : « Gueux  
de Prussien, va ! » (p. 115)

- 한경수역: 그는 가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엾은 여자야!》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성난 어조로 《개 같은 프로씨야 놈!》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p. 298)
- 방관역: 때로 그는 슬픈 시늉을 하고, 「가엾은 계집」이라고 한탄을 하다가 - 『프러샤 놈의 잡놈, 꺼져라!』라고, 골이 난 듯이 입 속에서 씨부렁거리는 것이었다. (p. 58)
- 이평우역: 때때로 슬픈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숨을 쉬고는 <불쌍한 계집애>라고도 하고 혹은 분격한 표정으로 이를 악물면서 <거지 같은 프로샤 놈아, 꺼져라!>하고 중얼거렸다. (p. 58)
- 양원달역: 때때로 서글픈 얼굴을 지으면서,  
『아아, 가엾은 아가씨!』  
하고 탄식을 하다가, 이번에는 성이난 듯한 눈치로,  
『에이 죽어라, 이 푸러시아의 부랑자 같으니!』  
하고 잇 사이로 중얼중얼하였다. (p. 469)

프러시아 장교의 동침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불 드 쉬프는 여행 동반자들의 정신적인 압박과 설득에 마지못해 장교의 요구에 응한다. 위의 장면은 불 드 쉬프가 장교의 요구에 응하려 위층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 나뻘지 일행들이 모여 있을 때, 공장주 루와조가 불 드 쉬프를 동정하며 그녀를 ‘pauve fille’라고 지칭하는 대목이다. 이 맥락에서 형용사 ‘pauve’는 ‘가엾은, 불쌍한’을 의미하고, ‘fille’란 단어는 보통 ‘소녀, 젊은 여성’을 의미하지만 ‘매춘부’라는 의미를 가진 속어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남녀의 등장인물들은 불 드 쉬프를 종종 ‘fille’라고 지칭하는데, 그녀는 이미 아이가 있는 여성으로 다른 등장여성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니다. 그런 불 드 쉬프를 ‘fille’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여성의 직업이 매춘부이기 때문에 경멸적으로 하대하는 지칭으로 봐야할 것이다.

‘fille’의 번역에서 북한 한경수 역<sup>8)</sup>은 ‘가엾은 여자야’라고 번역하여, 그녀에 대한 경멸적 어조가 느껴지지 않게 번역하였다. 한편, 남한 번역본들 중, 그녀를 ‘계집(애)’라고 하대한 다른 번역들과 달리, 양원달 역은 ‘fille’를

8) 북한 번역자 한경수는 원문의 다른 부분에서 ‘fille’를 ‘매춘부’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북한 번역자가 이 단어의 경멸적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장면에서 불 드 쉬프에 대한 멸칭이 사라진 것이다.

오히려 ‘아가씨’라는 존칭을 사용하여 불 드 쉬프의 이미지를 원문보다 더 격상시킨다.

이처럼 북한 번역본에서는 애국심 강한 창부 여주인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번역의 변형이 종종 발견되고,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원문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번역하여 여성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발견된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남한 번역본들을 비교하자면, 세 번역본들 중 방곤 역의 어조가 강한 편이고, 양원달 역이 가장 짙은 어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원문: Les deux femmes eurent un petit frisson. Les yeux de la jolie Mme Carré-Lamadon brillèrent, et elle était un peu pâle, comme si elle se sentait déjà prise de force par l’officier. (p. 110)

한경수역: 두 녀인은 바르르 가슴을 떨었다. 아름다운 카레 라마동 부인의 눈에는 광채가 돌고 있었으나, 그의 안색은 흡사 이미 장교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한 것처럼 약간 창백하였다. (p. 292)

방곤역: 두 부인들은 잔소름이 끼쳤다. 예쁜 카레.라마동 부인의 두 눈이 반짝이었고, 이미 그 여자의 얼굴은, 마치 장교에게 강간이나 당한 것처럼 창백했다. (pp. 50-51)

이평우역: 두 부인은 몸서리 쳤다. 예쁘게 생긴 카레.라마동 부인의 두 눈은 번쩍 빛을 냈다. 그리고 벌써 장교가 강제로 붙잡는 것을 느끼거나 한 것 같이 좀 창백해졌다. (p. 50)

양원달역: 두 여자는 몸에 약간 소름이 끼쳤다. 그 아름다운 카레 라마동 부인의 두 눈이 빛나면서, 그는 적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이미 그 장교에게 강제로 일을 당한 듯이 느끼는 모양이었다. (p. 464)

원문의 ‘comme si elle se sentait déjà prise de force par l’officier(그녀는 장교에게 이미 제압당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은 바로 앞의 주절인 ‘Les yeux de la jolie Mme Carré-Lamadon brillèrent, et elle était un peu pâle(아름다운 카레 라마동 부인의 두 눈은 빛나고 얼굴은 약간 창백하였다)’에 묘사된 카레 라마동 부인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 서술자가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부인의 모습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부인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북한의 한경수 역은 원문의 ‘prise de force par l’officier’가 ‘장교에게 제압당한, 또는 붙잡힌’으로도 번역 가능함에도 ‘검탈’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까레-라마동 부인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장교에게 이미 검탈이라고 당한 것 같은 표정이라고 독자들에게 부인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남한 번역본들에서는 방곤 역이 북한 번역과 마찬가지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중립적인 표현으로 비유한 원문을 명시적인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반면에 이평우 역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양원달 역은 방곤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보다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부인의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번역자들이 같은 원문에 대해 어떠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에게 등장인물들의 이미지가 다르게 수용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 5. 번역된 여성들의 의식 분석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간접적인 이미지나 묘사에 대한 번역뿐만 아니라, 여성 인물들의 발화나 감정 표현을 통한 직접적인 의식을 번역할 때도, 원문보다 번역문이 더 강한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특히, 불 드 쉬프를 포함한 서민 계층들에 속하는 등장인물들의 발언이 강하게 번역되면, 침략자에 대한 이들의 애국심을 더욱더 강조하는 문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작품 속 여성들은 침략자이자 지배자인 프러시아 장교에 대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상위 계층인 백작 부인과 공장주 부인, 상인 부인은 프러시아 장교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배자의 심기를 건드려 자신들의 출발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며,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절정기에 이르는 순간에는 침략자에게 저항하는 불 드 쉬프 보다 오히려 프러시아 장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반면에 서민 계층인 여관 여주인과 매춘부는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전쟁 침략자인 프러시아 군인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숨기지 않는다.

여성 등장인물들의 말, 생각, 지각 등이 직접화법, 간접화법, 자유간접화법, 서술문 등으로 기술된 원문이 번역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피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례와 같은 번역 표현의 차이가 발견되며, 이것은 전쟁이라는 참화에 처한 여성 인물이 갖는 침략자에 대한 반발심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 발현을 원문보다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원문: et pareillement révoltés par la souplesse de leurs compagnons, elle, tâchait de se montrer plus fière que ses voisines les femmes honnêtes, (p. 99)

한경수역: 다른 동료들의 무골충 같은 순종에 반발을 느낀 녀인은 자기 옆에 있는 귀부인보다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려 주려고 노력하였다. (p. 277)

방관역: 그리고 자기네 동행들의 공손함에 한결같이 반감을 느낀 나머지, 그 여자는 자기 이웃의 여자들, 즉 귀부인들보다 더 떳떳하게 보이려고 애썼고, (p. 34)

이평우역: 자기네들의 동행자들이 모두들 유순한 것을 보고 이들은 꼭 같은 반감을 느꼈다. 그래서 불 드 슈이프는 옆에 있는 훌륭한 부인들 보다도 한층 더 높은 자존심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었으며, (p. 33)

양원달역: 게다가 동행인들이 그렇게도 온수히 복종함을 보고 둘이 다 분개하였고, 그래서 색시는 제 이웃 여자들 - 그 숙녀들보다 한층 높은 긍지를 보이고자 애를 썼고, (p. 452)

마차가 토트에 도착하자, 여행객들은 프러시아 군인들의 검문을 받게 된다. 먼저 차에서 내린 귀족과 공장주, 상인 부부와 두 수녀가 프러시아 장교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주인공 불 드 슈이프가 이런 동행들에 대해 반발심을 느끼는 장면이다. 원문에서 작가는 불 드 슈이프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par la souplesse de leurs compagnons, (동반자들의 순응성에)’라고 표현하였을 뿐인데, 북한의 한경수는 원문에 없는 ‘무골충 같은’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침략자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동행인에 대한 주인공의 분노를 원문보다 더 강화한다(박선희, 2020, p. 107). 한편, 남한의 세 번역들을 비교해보면, 양원달 역이 다른 두 번역에 비해 불 드 슈이프의 동반자들을

보다 비굴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불 드 쉬프는 동일 원문을 번역한 남한의 세 번역과 비교해 봐도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에게 격한 성정을 가진 여인으로 임하고 침략자들에게 강한 반발심을 표출하는 애국심이 강한 서민 계층의 여성으로 이해될 것이다.

작품 속에서 또 다른 서민 계층의 여성인 여관의 여주인, 마담 폴랑비의 발화에서도 원문과는 다른 번역 표현으로 침략자인 프러시아 군인들에 대한 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번역이 발견되기도 한다.

원문: « Oui, madame, ces gens-là, ça ne fait que manger des pommes de terre et du cochon, et puis du cochon et des pommes de terre. Et il ne faut pas croire qu'ils sont propres. — Oh non ! — Ils ordurent partout, sauf le respect que je vous dois. (p. 101)

한경수역: 《그래요, 마나님, 그 녀석들에겐 감자와 돼지고기만 먹여 두면 되는 걸요. 자나깨나 돼지고기와 감자면 다니깐요. 그 녀석들을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어렵도 없지요. 점잖은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긴 죄송하지만 그 녀석들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을 건드린답니다. (p. 280)

방곤역: 『정말이죠, 부인, 그 놈들의 하는 것이란, 감자하고 돼지고기를 쳐먹고, 다음에는 돼지고기하고 감자를 먹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또 놈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아, 천만예요!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놈들은 어디서나 더러운 짓을 한답니다. (p. 37)

이평우역: <정말이지 마담, 그놈들이 먹는 거라고는 밤낮 감자와 돼지뿐이에요. 그놈들이 깨끗하다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예요. - 천만의 말씀예요! -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그저 아무 데나 대고 오줌을 갈긴다니깐요. (p. 37)

양원달역: 『참말이지 부인, 그 녀석들의 하는 일이란 감자와 돼지고기를 쳐먹고나서는 또다시 돼지고기와 감자를 쳐먹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또 그것들이 정결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잘못예요. 아아 천만예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 녀석들은 어디서나 더러운 짓을 하는걸요. (p. 454)

여관의 여주인 마담 폴랑비는 마을을 침략한 프러시아 군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Ils ordurent partout. (그들은 사방에서 더러운 짓을 합니다)’라고 백

작 부인에게 발화한다. 이 구문은 프러시아 군인들의 품행 수준이 낮아서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로 해석가능 하다(박선희, 2020, p. 107). 남한의 세 번역을 비교하여 보면, 이평우 역은 군인들이 저지르는 ‘ordurent’를 ‘오줌을 갈기다’로 구체적인 사례로 번역하였고, 방곤과 양원달 역은 ‘더러운 짓을 하다’로 번역하여, 그들이 하는 더러운 짓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판단의 역할을 독자들에게 넘기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한경수 역은 침략자들인 프러시아 군인들이 그 마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이쯤되면 원문의 모호한 의미를 명확하게 번역하려는 번역자의 적극적인 의욕이 원문의 명시화 번역을 넘어 정치적 의도성이 더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게한다. 이러한 번역 표현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의 시기에, 게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억압을 경험하고 연이어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고 교육받는 북한의 독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켜 그들의 내부 결속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북한 번역본의 여관 여주인은 민주투사 코르뉴테와 나누는 대화에서도 원문보다 험악한 발화를 한다.

원문: La vieille femme baissa la tête :

« Oui, quand on se défend, c'est autre chose ; mais si l'on ne devrait pas plutôt tuer tous les rois qui font ça pour leur plaisir ? »

(p. 102)

한경수역: 노파는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러문요. 자기를 지킬 때엔 얘기가 다르지요. 그렇지만 재미로 전쟁을 하는 왕이라면 그저 모조리 한 몽둥이로 쳐 죽여 버리는게 어떨가요.》 (p. 281)

방곤역: 노파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죠, 자기를 방어할 때는 별문제죠. 그렇지만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왕들을 전부 죽여 버리면 안 되요?』 (p. 38)

이평우역: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자기 몸을 지킨다는 것은 별문제지요. 그러니 차라

리, 제 재미로 전쟁을 시작하는 임금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p. 37)

양원달역: 늙은 부인은 고개를 떨구어,

『그렇겠지요. 나 자신을 지킬 적에는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차라리 제 향락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그 왕들은 온통 죽여 없애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안다면 좋으련만!』 (p. 455)

원문의 ‘la vieille femme(노부인)’는 여관 여주인, 마담 폴랑비이며 밑줄친 부분은 마담 폴랑비의 직접 발화이다. 그녀는 민주 투사와 전쟁의 야만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tuer tous les rois (왕들을 모두 죽이다)’라고 말한다. 남한 번역본들에서는 원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번역본의 마담 폴랑비는, 앞의 번역 예와 마찬가지로, 원문보다 더 혐악하게 ‘왕들을 모조리 몽둥이로 쳐 죽여버리’자고 그녀의 혐오와 분노가 생생하게 담긴 비속어로 말한다. 그녀의 생생한 비속적 발화는 당시 1960년대 냉전 시기의 북한 독자들에게는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 북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제국주의 체제의 전쟁 우두머리들에 대한 증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적인 메세지로서 기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속적인 발화는 북한 번역본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등장 여성 인물들 중 주인공, 불 드 쉬프는 매춘부라는 직업으로 인해 귀족, 공작주, 상인의 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이러한 불 드 쉬프에 대한 세 부인들의 발화가 북한 번역뿐만 아니라, 남한 번역본들에서도 비속해지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원문: On semblait ne pas la voir, ne pas la connaître ; mais Mme Loiseau, la considérant de loin avec indignation, dit à mi-voix à son mari :  
« Heureusement que je ne suis pas à côté d'elle. » (p. 118)

한경수역: 사람들은 그 여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알은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먼발치에서 화를 돌구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던 루아조 부인은 남편에게 귀속말로 말했다.

《저 계집 옆에 앉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구먼요.》 (p. 301)

방곤역: 모두들 그 여자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러나 르와조 부

인은 멀리서 그 여자를 분개한 눈초리로 보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다행히 내가 그 년 옆이 아니에요.』 (p. 61)

이평우역: 다들 이 여자를 보지도 못하고 아지도[*sic*] 못한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르와조부인은 멀리서 성이 난 눈으로 이 여자를 지켜 보면서 낮으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근거렸다.

<저년 곁에 안 앉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p. 62)

양원달역: 누구나가 그를 보지 않는 듯,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듯하였다. 그런데 르와조 부인만이 멀리서, 분개한 눈치로 색시를 바라보면서 크지 않은 소리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자린 저 옆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p. 472)

예문에서 ‘à côté d'elle(그녀 옆에)’은 이 작품에서 욕심 많고 성정이 거친 여성으로 규정된 상인 부인, 루아조 부인의 직접 발화이다. 여기서 'elle(그녀)'은 불 드 쉬프를 가리킨다. 원문의 프랑스어는 불 드 쉬프를 강세형 인칭대명사 ‘elle’로 표기하여, 루아조 부인의 발화에서 대명사 ‘elle’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는 불 드 쉬프에 대한 멸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대명사 ‘그녀’로 번역하면 어색할 수 있으므로 네 번역 모두 대명사 ‘elle(그녀)’을 명사로 품사 전환하여 번역하였다.

네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양원달 역에서의 루와조 부인의 발화, ‘저 옆’이 가장 평범한 반면에, 방곤 역과 이평우 역은 원문의 ‘elle’을 ‘그 년’, ‘저 년’으로 번역하여 복한 한경수 역의 ‘저 계집’보다 루아조 부인을 더 심술궂고 상스러운 여성으로 독자들에게 인식하게 한다.

또한, 다음의 예처럼 불 드 쉬프에 대한 작품 속 귀부인들의 멸시는 남한 번역본에서 발견되는데, 남한의 세 번역본에서는 방곤 역의 어조가 가장 강하고, 양원달 역의 어조가 가장 부드러운 일관적인 경향성이 발견된다.

원문: Le mépris des dames pour cette fille devenait féroce, comme une envie de la tuer, ou de la jeter en bas de la voiture, dans la neige, elle, sa timbale, son panier et ses provisions. (p. 94)

한경수역: 매춘부에 대한 귀부인들의 증오는 더욱더 커 갔다. 그 녀인을 죽이고 녀인을 마차에서 집어 던져 녀인이고 잔이고 바구니고 음식이고 모조리 눈 속에 내동댕이치고 싶은 정도였다. (p.

271)

방곤역: 그 계집년에 대한 귀부인들의 멸시감은 흑심하게 되었다. 마치 그 년을 죽여 버리든가, 그 년을 마차에서 눈 속으로, 그 년과, 은잔과, 광주리와, 음식들을 전부 팽개쳐 버리고 싶은 욕망과도 같았다. (p. 27)

이평우역: 이 매춘부에 대한 부인들의 경멸은, 이 여자를 죽여버리든 지 혹은 이 여자를 잔이나 바구니나 음식물과 함께 마차 밖의 눈 속으로 내 던져 버리고 싶은 만큼 잔인스러워졌다. (p. 26-27)

양원달역: 이 여자에 대한 부인들의 멸시감은 더욱 맹렬해졌다. 마치 이것을 죽여버리고 싶은, 혹은 잔이나 바구니나 음식이나 사랍 이나 몽땅 마차에서 집어서 눈 속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욕망과도 같은 맹렬한 멸시감이었다. (p. 447)

위의 예문은 이 소설의 초반부로 주요 등장인물들이 마차 안에 처음 만나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는 장면의 에피소드이다. 주인공 불 드 쉬프는 마차 여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음식물을 먹고 있고, 미처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배고픈 다른 일행들은 그녀가 먹는 음식 냄새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원문의 ‘Le mépris des dames(부인들의 경멸)’에서 ‘dames(부인들)’는 백작 부인, 공장주 부인, 상인 부인을 지칭하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불 드 쉬프에 대한 멸칭, ‘cette fille’<sup>9)</sup>은 이 ‘dames’들의 의식이 자유간접화법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장의 반과거 시제 ‘devenait(~이 되었다)’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시 형용사 ‘cette(이, 그, 저)’는 인물들의 현재 시점을 드러내는 자유간접화법의 문체적 지표이다. 배고픈 자신들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불 드 쉬프에 대한 ‘dames’들의 증오가 ‘cette’로 나타나고, 매춘부라는 직업을 가진 불 드 쉬프에 대한 경멸을 ‘fille’라는 명사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화된 ‘cette fille’를 한경수 역과 이평우 역에서는 ‘매춘부’, ‘이 매춘부’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방곤 역에서는 ‘그 계집년’이 되어, 음식을 먹고 있는 불 드 쉬프에 대한 증오심 앞에 귀부인들 조차 상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여인들로 등장한다. 반면에, 양원달 역에서는 ‘이 여자’라고 번역하여 원문 ‘fille’에 담긴 부인들의 멸시가 단어 자체로는 직접

9) ‘fille’가 왜 멸칭인지는 앞의 4장 ‘pauve fille’의 번역 사례에서 설명하였다.

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de la tuer, ou de la jeter(그녀를 죽이거나 던지고픈)’에서 불 드 쉬프를 직접 목적 보어 대명사 ‘la(그녀를)’로 지칭함으로써 프랑스어 원문에서 불 드 쉬프에 대한 부인들의 증오가 대명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대명사 ‘la’를 다른 세 번역에서는 ‘그 녀인’, ‘이 여자’, ‘이 것’, ‘사람이나’로 명사 전환하였다. 반면에, 방곤 역에서는 ‘la’를 ‘그 년을’이라고 번역하여 불 드 쉬프에 대한 부인들의 분노와 증오가 상스러운 표현으로 직접 표출되도록 번역함으로써 주인공에 대한 다른 여성들의 멸시와 분노가 다른 번역본들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사례들은 같은 남한 번역본들 사이에서도 번역자가 어떤 번역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독자들에게 다르게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6. 결론

지금까지 「Boule de suif」에 나타난 여성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나 여성들의 의식을 1960년대 남한과 북한 번역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검토한 ‘여성 인물들에 대한 묘사’ 번역은 번역자가 어떤 번역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등장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규정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장에서 검토한 직접화법이나 자유간접화법에 담긴 ‘여성 인물들의 의식’에 대한 번역은 번역자가 인물들의 발화를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함에 따라서 독자들에게 그 여성들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해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북한의 번역문들 중에서 원문을 명시적인 강한 어조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고상한 이미지로 인식되던 귀부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서민 여성들의 애국심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각인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번역본에서는 애국심 강한 창부 여주인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번역의 변형이 종종 발견되고,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원문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번역되어 여성들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왜곡시키는 경향

성이 발견되었다. 한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남한 번역본들에서도 번역자에 따라서 여성 인물들의 어조에 차이가 발견되는데, 방곤 역의 어조가 강한 편이고, 양원달 역이 가장 젊잖은 어조를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Boule de suif」에 나타난 여성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여성들의 의식 번역을 주제로 하는 이 연구는 19세기 프랑스 소설과 20세기 남북한의 번역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연구로서 냉전시기의 남북한 번역을 비교하는 공시적 연구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폭력적인 ‘전쟁’이라는 참화에 처한 19세기 프랑스 제국주의 사회의 계층별 여성들에 대한 묘사와 의식 번역을 통해서 북한 번역자의 명시화 전략이 일제 강점기의 강압을 경험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경험한 냉전 시기의 북한 독자들에게 때로는 전쟁의 공포와 침략자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번역된 남한 번역본들에서는 번역자들의 표현적 어조들의 차이가 등장 여성들의 이미지를 번역본의 독자들에게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한 편의 연구 내용은 1960년대 남북한 문학 번역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 냉전 시기에 수행된 남한과 북한의 외국 문학 번역의 특성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남북한 번역들의 보다 다양하고 구분적인 특성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다른 남북한 번역본들을 상호 비교하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Maupassant, G. (1974). *Boule de Suif. Contes et nouvelles I* [단편과 중편소설들 1]. Gallimard.
- 모과쌍. (1965). *비계' 덩어리* (한경수 역). 프랑스 단편선.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 기.드.모빠쌍. (1960). 비계덩어리 (방곤 역). 양문사.  
모파상. (1960). 지방덩어리 (이평우 역). 대동당.  
모파상. (1962). 부울 드 쉬프 (양원달 역). 여자의 일생, 피에르와 장. 을유문  
회사.

## <2차 자료>

- 김병철. (1980).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을유문화사.  
김병철. (1988).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김병철. (1998).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문상민, 박치원, 한경수, 황경희. (1958). 서구라파 문학 개관. 국립문학예술  
서적출판사.  
박선희. (2019). 북한의 프랑스 문학 번역본의 겉텍스트 분석. 프랑스어문교  
육, 64, 95-124.  
박선희. (2020). 1960년대 북한 번역본 고찰 - 「비계’ 덩어리 Boule de suif」의  
경우. 번역학연구, 21(2), 95-115.  
오오무라 마사오. (2003).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윤동주와 한국문학 (pp.  
350-365). 소명출판.  
이은정. (2019). 북한 문학번역과 수용의 프레이밍 연구: *Gone with the Wind*  
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혜용. (2010).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번역비평 시론. 프랑스어문교육, 35,  
413-437.  
Heilbron, J., & Sapiro, G. (2002). La traduction littéraire, un objet sociologique  
[문학 번역, 사회학적 탐구 대상].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3-5.  
Popa, L. (2002). Un transfert littéraire politisé, Circuits de traduction des  
littératures d'Europe de l'Est en France, 1947-1989 [정치화된 문학의 이  
식 — 1947년부터 1989년까지 프랑스에서의 동유럽 문학 번역 경로].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3-5.  
Wolf, M. (2007).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 M. Wolf &  
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pp. 1-36). John

Benjamins.

Casanova, P. (2002). Consécration et accumulation de capital littéraire, La traduction comme échange inégal [문학 자본의 정당화와 축적 — 불평등한 교환으로서의 번역].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1-36.

## Translating women in war: North and South Korean versions of *Boule de Suif*

Sunheui Park (omoname@korea.ac.kr)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four Korean translations of Guy de Maupassant's *Boule de suif*, all published in the 1960s—one in North Korea and three in South Korea. While the original story depicts French citizens enduring the hardships of the Franco-Prussian War of the 19th century, these Korean translations were produced for readers who had survived the Korean War and subsequently lived under the Cold War tensions between the two ideologically opposed Korea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tudy compares the translation methods and strategies employed by the North and South Korean translators, focusing on how they rendered the portrayal of female characters. The findings illustrate how their political intentions and textual choices shape and convey specific representations of women in wartime to their respective readerships. These translations, often more explicit than the source text, either reinforce the female characters' patriotism or expose their hypocrisy.

**Keywords:** *Boule de suif*; North and South Korean translations; Cold War period; translation of female characters; politics of translation

**키워드:** 비계 덩어리, 남북한 번역, 냉전 시기, 여성 인물 번역, 번역의 정치성

박선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초빙교수

omoname@korea.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5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6월 15일